

## 컷오프 폭풍전야

더민주 오늘 2차·국민의당 주말께 발표  
광주·전남 의원들 몇 명 포함될까 촉각

여야가 4·13 총선 공천을 앞두고 2차 현역 컷오프(공천배제) 발표가 조망기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 지역정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8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더민주 1차 하위 20% 현역 컷오프에 이어, 3선 이상 중진 50%와 초·재선 30%를 대상으로 한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도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을 이번 주말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2차 컷오프 대상이 이날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밀심사가 늦어지면서 이르면 9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민주의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 중 1차 컷오프에는 대상자가 없었지만, 2차에는 1~2명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 더민주의 3선 이상은 강기정·유운근·김성곤 의원, 재선은 김영록·이운석 의원, 초선은 박재호·이재호·신정훈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강 의원은 이미 공천배제가 결정됐고, 김성곤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6명의 의원들이 2차 컷오프 대상자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광주는 강기정 의원이 중앙당의 공천배제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재호 의원만이 유일한 현역이어서 2차 컷오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9일께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북구를, 광산구갑, 서구갑 등 3곳을 경선 지역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3곳만 경선 지역으로 굳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

다”고 답변했다.

이 단장은 또 동남 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복당 추진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예비후보들 역시 더민주의 2차 컷오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컷오프 대상이 나오는 지역구는 선거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컷오프 대상자의 국민의당 합류나 무소속 출마 여부도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도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서유 심사와 지난 6일 치러진 공개면접 접수 등으로 현역 의원들 뿐 아니라 예비후보들의 컷오프가 이번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은 광주에서 박주선·전정배·장병완·임내현·김동철·권은희 의원 등 6명이 있으며, 전남은 박지원·주승용·김승남·황주홍 의원 등 4명이다.

한편, 새누리당도 4·13 총선 공천 초점이 수도권·충청권의 ‘킬러공천’, 영남권의 ‘중진교체’로 맞춰지고 있다. 킬러공천은 상대방을 저격하기 위한 맞춤형 후보를 투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략공천에 가깝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뿌리를 내린 야당 의원을 축출하려면 ‘상향식 공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뒷발’으로 불리는 영남권의 공천은 중진교체의 폭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4일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3선) 탈락에 이어 곧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중진 의원의 추가 컷오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널리 퍼졌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총선 표밭 점검-광주 동남을 ▶5면



광주 시간 속을 걷다-관덕정 ▶18면



‘알파스쿨’ 심폐소생술 배우기

8일 호남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알파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생 1700명이 119 구급대원의 지도 아래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호남대는 지난 29일부터 신입생들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알파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스마트가전 납품업체들 ‘신선한 반란’

삼성·동부대우전자 납품 축적된 기술…공동 브랜드 MIG 첫 생산  
디케이산업 등 18개 업체 참여…市, 홍보·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삼성과 동부대우전자 등에 납품해온 광주지역 중소 전자 납품업체들이 처음으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다. 중소 납품업체들이 협업을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대기업에 의존해온 지역 산업생태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촉발된 지역 가전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전산업육성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생산물량 감축 때문에 크게 위축된 전자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납품위주 관행을 바

꾸는 공동·협업 생산체 도입이다. 그동안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해 온 업체들이 제품 제작에 참여해 ‘광주형 완제품’을 만드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들이 확보한 기술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제품들은 식품건조기, 주방용싱크대 살균기, 스마트 환기 시스템, 의류 관리·건조기 등이다. 시가 집중육성키로 한 스마트 에어(Air) 가전산업에 포함되는 제품군이다. ‘에어가전’은 바람을 일으키고 공기를 강제순환하는 제품이 주축인 신산업이다.

중소 가전업체들은 현재 보유한 기술력

을 바탕으로 연내에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씨엔티, 인아, 현대엔티, 현성오텍, 디케이산업, 광진산업 등 모두 18개 업체가 제품개발·제작에 참여키로 했다.

시는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이른바 광주형 공동 브랜드인 ‘MIG(Made in Gwangju)’로 관리·지원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품 생산은 물론 공동 마케팅 등 판매 체계를 구축도 지원한다. 시가 최근 ‘광주시 상징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MIG 브랜드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를 위한 조치다.

시는 납품업체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제품을 생산하면 가전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 ‘가전산업육성 종합대

책’에 ▲납품 감소에 따른 대체물량 확보

방안 ▲유동성 확보 등 기업지원 강화 ▲삼성전자의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전기

가전산업육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방안 검토, 에너지 밸리 등과 연계한 사업 다각화 지원, 기업 협업을 통한 핵심부품 R&D 지원, 시와 삼성전자 간 합의를 이행 관리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들 방안에는 협력업체 실태 조사, 가전산업 상생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이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가전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정책을 마련해 지역 가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 전공노 가입 투표 허용

정부는 불법 간주… 해당 노조 간부 형사고발 ‘강경’

광주시가 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투표를 허용, 준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해당 노조 간부를 형사고발하는 등

시 입장과는 대척점에 섰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8일 실·과장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변호사, 노동법 전공학자, 노무사 등의 자문결과 투표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

견을 들었다”며 “업무시간 외 투표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법을 자문과 검토, 2014년 읍무즈만 결정, 민선 5기 때 투표 허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기관이 부당 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르면 시 공무원 노조가 추진하는 전공노 가입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행자부는 이날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 강승환 시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을 형사고발하고 시에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노조는 9일부터 11일까지 노조원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여부를 묻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투표 총회)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S 300h(에기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 16.4km/ℓ(도시상행 : 16.1km/ℓ, 고속도로연비 : 16.7km/ℓ), 복합CO<sub>2</sub> 배출량 : 103g/km, 등급 :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위기모드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던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